

Z 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관심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구옥희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Interest on Professional Identity of Z Generation Nursing Students

Ok-Hee Koo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Z 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B 대학 간호학과 2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정체성은 평균 4.01점(최대 5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종교, 학과결정자, 대학생활만족도가 전문직 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직 정체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문화적 관심($\beta=.590, p=.000$)이었으며 대학생활만족도($\beta=.229, p=.000$), 경제적 관심($\beta=.127, p=.020$), 정치적 관심($\beta=-.126, p=.011$)으로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51.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직 정체성의 주요인으로 확인된 사회문화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 자신의 실천의지 함양과 간호 영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정책 활동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과 학과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관련 프로그램 및 긍정적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지지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interests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Generation Z nursing students. From August to September 2022,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enrolling 258 nursing students at B University. The SPSS/WIN 20.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Scheffe's post hoc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verage professional identity was determined to be 4.01 points (maximum 5 point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in professional identity with respect to gender, religion, decision maker of major,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were sociocultural interest ($\beta=.590, p=.000$),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beta=.229, p=.000$), economic interest ($\beta=.127, p=.020$), and political interest ($\beta=-.126, p=.01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51.5%. Our results indicate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ocultural interest, which was identified as a major factor in professional identity, the nursing students' own will to practice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policy activities (including nursing) need to be address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there is a necessity to develop various support systems such as systematic career-related programs and positive university life adjustment programs at the university and department levels.

Keywords : Economic, Generation, Interest, Nursing Student, Political, Professional Identity, Sociocultural

본 논문은 2023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Ok-Hee Koo(Baekseok Univ.)

email: koh0528@bu.ac.kr

Received February 14, 2023

Revised March 22,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내일연구소(2020)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Z세대로 본다. Z 세대는 AI가 보편화되고 양적 성장이 멈춘 시기에 성장하여 나만의 재능과 개성을 인정받기 위해 경쟁하며 디지털은 기본이고 능력 지향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의미를 둔다[1]. Z 세대는 총인구의 감소와 경제적 불황이 만성화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투자유행 및 Covid-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겪고 대안교육, 홈스쿨링, 원격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교육받고 있다. 또한 K-콘텐츠의 위력을 직접 경험하며 스트리밍과 클라우드의 보편화 및 메타버스의 대중화 기술을 접하고 사회·정치적으로 젠더 평등 및 갈등에 대한 문제, 지구온난화와 플라스틱 규제와 같은 환경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세대이다[2]. 이러한 미래의 주역인 Z 세대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현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현상을 구분하는 범위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정치적 관심은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인지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3]으로 미디어 이용이 정치적 관심에 크게 영향을 주고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관심이 정치참여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한다[3,4]. 또한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시기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5].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획일화된 입시교육과 의존적인 생활로 대학 입학 후 취업 경쟁, 사회적 기대감, 경제문제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6]하고 특히 대학생의 스트레스 원인 중 35.5%가 경제 문제[7]라고 한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의 투자유행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며[8]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Z세대 대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이나 태도, 행동 등을 갖추고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준비[9]가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과정 중에 경제관련 지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전무하므로 현 대학생들의 경제관심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핵

심적 구성원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서의 기회균등을 지지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며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질서인식을 갖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을 사회문화적 관심도가 높은 행위로 볼 수 있다[10].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전공과목 공부와 임상실습 및 좋은 직장예의 취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회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5].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관심과 사회정의 실천행동을 통하여 임상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며 질적인 간호 제공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정의 간호교육도 필요하다[11].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12]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13]. 전문직 정체성 개념은 Mead(1934)와 Erikson(1968)의 정체성 이론에서 시작되어 사회문화를 익히면서 발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므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한다[14]. 또한 전문직 정체성 선행변인에 관한 35편의 메타분석 연구[14]를 통해 대다수의 연구가 특정분야 직업군(보육교사, 치과위생사, 직업상담사 등)에 연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나이, 경력 및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학습민첩성, 윤리의식,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관련 변인, 역할모호성과 직무만족과 같은 직무관련 변인, 경력개발지원과 조직학습역량 등의 조직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과정 중에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미래 간호영역의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며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조직의 성과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Z세대인 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 정도가 전문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관심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

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Z 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수준을 파악하고, 전문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B 대학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Win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f)=0.15, 유의수준(α)=.05, power($1-\beta$)=.95, 관련 변인의 수를 16으로 하였을 때 204명이 산출되었다.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특성상 충실하지 못한 설문지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10~20% 탈락률보다 높게 선착순 300명까지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42부를 제외한 25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치적 관심

정치적 관심은 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15]으로 Shin & Yang[16]이 개발한 것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Shin[15]이 수정·보완한 도구에 Kim et al.[17]의 정치관심 도구 문항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Shin & Yang[16]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85이었고, Shin[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3.2 경제적 관심

경제적 관심은 Cho[18]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경제의식에 대한 4문항과 경제지식에 관한 4문항으로 총 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18]의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2.3.3 사회문화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은 세계화된 사회에서 인류의 번영과 기본권 향상, 다양한 믿음과 실천을 존중하는 사회 형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의미[19]하는 것으로 Yoon[19]이 개발한 대학생용 세계시민의식 척도(2017)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1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지식 5문항, 기술 5문항, 태도 5문항, 실천의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4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역량을 위한 기술, 지식, 가치 이외에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20]로 Kim[21]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의 구성은 총 17문항으로 자율성에 관한 신념 4문항, 서비스에 관한 신념 3문항, 직업소명의식 6문항, 전문조직활동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22]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여부를 Shapiro-Wilk test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분석을 하였다.
- 종속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후 회귀 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BUIRB-202208-HR-017).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하는 자는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연구 도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보관 후 연구 종료 3년 후에 삭제처리 함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모두 258명으로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출생한 Z 세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1-2005년 출생 학생이 70.5%(182명)이며 여학생이 79.1%(204명)이었고 남학생은 20.9%(54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63.2%(163명)이었고 1학년이 52.3%(135명)로 가장 많았다. 주 성장지로는 대도시가 62.8%(162명)이었고 농촌이나 섬 지역에 해당하는 기타는 1.9%(5명)이었다. 간호학 전공을 본인이 선택한 경우가 91.9%(237명)이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64.0%(165명)이었다.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이 64.3%(166명)이었으나 5.5%(14명)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가 84.9%(219명)이었다(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및 전문직 정체성 정도

대상자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과 세부항목, 사회문화적 관심과 세부항목 및 전문직 정체성과 세부항목에 대한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정치적 관심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31점 이었으며 경제적 관심은 5점 만점에 3.75점 이었고 세부항목인 경제의식은 3.71점, 경제지식은 3.78점 이었다. 사회문화적 관심은 5점 만점에 4.15

점 이었고 세부항목인 지식은 4.34점, 기술은 3.90점, 태도는 4.39점, 실천의지는 3.99점 이었다. 전문직 정체성은 5점 만점에 4.01점 이었으며, 자율성 신념은 3.81점, 서비스 신념은 3.98점, 직업소명의식은 4.04점, 전문조직활동은 4.20점 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검증을 살펴본 결과 성별($t=5.54, p=.019$), 종교($t=4.77, p=.030$), 학과결정자($t=4.89, p=.028$), 대학생활만족도($F=15.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가 여성이고 종교가 있으며 간호학과를 본인이 결정한 경우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그룹과 매우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그룹에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level by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58)

Variables	Categories	n(%)	Professional Identity	
			Mean ±SD	t/F (p) Scheffé
Year of birth	1996-2000	76(29.5)	3.98±.52	0.59 (.443)
	2001-2005	182(70.5)	4.03±.50	
Gender	Male	54(20.9)	3.87±.47	5.54 (.019)
	Female	204(79.1)	4.05±.51	
Religion	Yes	95(36.8)	4.10±.48	4.77 (.030)
	No	163(63.2)	3.96±.51	
Grade	1st	135(52.3)	4.01±.47	0.04 (.989)
	2nd	23(8.9)	4.02±.52	
	3rd	68(26.4)	4.00±.56	
	4th	32(12.4)	4.03±.51	
Main grown up area	Large city	162(62.8)	4.04±.51	0.91 (.404)
	Small city	91(35.3)	3.96±.47	
	other	5(1.9)	3.89±.75	
Decision maker of major	Self	237(91.9)	4.03±.50	4.89 (.028)
	Parents	21(8.1)	3.78±.55	
Socio-economic Level	Very high	2(0.8)	3.47±1.25	1.46 (.217)
	High	60(23.2)	4.06±.48	
	Moderate	165(64.0)	4.01±.51	
	Low	29(11.2)	3.93±.48	
	Very low	2(0.8)	4.53±.00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satisfied ^a	23(8.9)	4.46±.38	15.21 (<.001) a,b>d,e
	Satisfied ^b	143(55.4)	4.10±.43	
	Moderate ^c	78(30.2)	3.81±.52	
	Dissatisfied ^d	11(4.3)	3.56±.37	
	Very dissatisfied ^e	3(1.2)	3.29±.67	
Favorite political party	Yes	39(15.1)	4.12±.51	2.13 (.146)
	No	219(84.9)	3.99±.50	

Table 2. The descriptive values of study variables (N=258)

Variables		Mean ±SD	Range
Political Interest		3.31 ±.97	1~5
Economic Interest	consciousness	3.71 ±.53	1~5
	Knowledge	3.78 ±.55	
	Total	3.75 ±.48	
Sociocultural Interest	Knowledge	4.34 ±.52	1~5
	skill	3.90 ±.61	
	attitude	4.39 ±.55	
	behavioral intention	3.99 ±.66	
	Total	4.15 ±.45	
Professional Identity	belief in autonomy	3.81 ±.61	1~5
	belief in service	3.98 ±.58	
	professional vocation	4.04 ±.64	
	professional organization activity	4.20 ±.57	
	Total	4.01 ±.50	

3.4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치적 관심은 경제적 관심($r=.379, p<.01$), 사회문화적 관심($r=.408, p<.01$), 전문직 정체성($r=.194, p<.01$)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적 관심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심($r=.534, p<.01$), 전문직 정체성($r=.433,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문화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r=.671, p<.01$)(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58)

	Political Interest	Economic Interest	Socio-cultural Interest	Professional Identity
Political Interest	1			
Economic Interest	.379**	1		
Socio-cultural Interest	.408**	.534**	1	
Professional Identity	.194**	.433**	.671**	1

** $p<.01$

3.5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 종교, 학과결정자, 대학생활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을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7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고 회귀 표준화 잔차의 등분상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25~1.700로 기준치 10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588~0.976로 0.1 이상으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Table 4. Affecting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N=258)

Variables	B	S.E.	β	t	p	VIF	Tolerance	Durbin-Watson
Constant	.709	.227		3.118	.002			1.947
Political Interest	-.065	.025	-.126	-2.572	.011	1.272	.786	
Economic Interest	.134	.057	.127	2.344	.020	1.544	.648	
Sociocultural Interest	.646	.062	.590	10.414	.000	1.700	.588	
Gender	.074	.057	.060	1.305	.119	1.128	.887	
Religion	-.011	.047	-.011	-.234	.815	1.074	.931	
Decision maker of major	.139	.081	.076	1.722	.086	1.025	.976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240	.048	.229	4.996	.000	1.111	.900	

F value : 39.967, p-value: <.000, R² : .528, adjusted R² : .515

*Dummy variables: Gender(M=0, F=1), Religion(No=0, Yes=1), Decision maker of major(Parent=0, Self=1),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Unsatisfaction=0, satisfaction=1)

으로는 사회문화적 관심($\beta=.590, p=.000$), 대학생활 만족도($\beta=.229, p=.000$), 경제적 관심($\beta=.127, p=.020$), 정치적 관심($\beta=-.126, p=.01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들은 전문직 정체성을 51.5%를 설명하였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사회문화적 관심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Z 세대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심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 전문직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은 평균 4.01 ± 0.50 점(최대 5점)이었으며 수술실 간호사 대상 Kim 연구[21]에서는 평균 3.63 ± 0.48 점(최대 5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Kim 연구[11]에서는 3.77 ± 0.60 점(최대 5점), Ryu & Choi[23]의 3.4학년 대상 연구에서는 3.81 ± 0.56 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 및 코로나 등의 변수가 간호직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 교수자의 학습전략과 다양한 기관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도록 실습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23,24]. 세부항목의 경우 전문직활동이 높고 자율성이 낮게 나타났는데 Ryu & Choi[23]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높고 전문직활동이 낮게 나타나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대상자가 많아 아직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 간호사로서의 자긍심이나 소명의식의 성취부족으로 자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모집단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정치적 관심은 평균 3.31 ± 0.97 점(최대 5점)이었으며 간호학과 3,4학년 대상의 Lee 연구[4]에서는 3.17 ± 0.91 점, 대구지역 일반대학생 Shin의 연구[15]에서는 평균 2.56 ± 0.88 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적 관심수준이 더 높았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치적 이슈 관련 정보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아 정치적 관심도가 높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정치·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을 많이 할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4,15,25]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경제적 관심의 평균은 3.75 ± 0.48 점(최대 5점)이었으며 Cho[18]의 사범대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경제의식이 2.84점, 경제지식이 2.24점이었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경제의식은 3.71점 경제지식은 3.78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Z 세대들이 오토, 피자어족 등 젊은 나이에 경제적 억압이나 규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경제이슈에 대한 많은 정보의 영향으로 돈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며 돈에 대한 가치와 경제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사회문화적 관심은 평균 4.15 ± 0.45 점(최대 5점)이었으며 간호학과 3,4학년 대상의 Lee의 연구[4]에서는 3.93 ± 0.44 점과 Ko et. al의 연구[26]에서는 3.89 ± 0.40 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관심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적 이슈 질문지(Social Issue Questionnaire:SIQ)를 이용한 Min의 연구[5]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5.18 ± 1.74 점(최대 9점)이었고 사회정의도구(Social Justice Scale:SJS)도구를 사용한 Kim의 연구[11]에서는 5.22점(최대 7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관심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제시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글로벌 교육을 강조한 효과로 사료된다. 세부항목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타인의 감정과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4.39 ± 0.55)와 사회정의, 상호의존성 및 보편성 등을 이해하는 지식(4.34 ± 0.52) 수준은 높은 편이었으나 공감적 요소인 실천의지(3.99 ± 0.66)와 비판적인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인 기술(3.90 ± 0.61)은 상대적으로 낮아 Lee의 연구[4]결과와 같았다. 이를 위해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전문직 정체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이 남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조직과 학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전문직 정체성이 높았는데 이는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7]. 또한 학과결정자가 본인인 경우가 전문직 정체성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28], 전문직관[29] 관련변수 연구결과와 같다. 그만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모두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고 그런 결정이 더욱 오랫동안 전문직에 남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만족도는 전문직 정체성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

을 주는 변수이었는데 특히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보다 전문직 정체성의 차이가 많았다. 전공만족도나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29]과 직업정체성[30]이 높고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도 높다[23]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미있고 알차게 대학생활을 보내도록 대학차원의 다양한 체험과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과차원의 봉사활동, 융합교육과 다양한 임상실습시 제공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을 증진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은 모두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전문직 정체성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는데 이들 개념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나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조직에서 정치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시켜 전문인으로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31] 정치적 관심은 정치참여로 이어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뚜렷한 간호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다[32]. 또한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적 정체성 간의 갈등 발생시 좀 더 균형적인 시각으로 글로벌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경제교육 전문가와 학교가 연계하여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도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9]. 본 연구를 통해 전문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나 정치관련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학생들에게 시민사회나 전문직 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올바른 경제적 관심이 경제관념 정립에 영향을 주고 합리적인 경제의 사결정을 도와 사회경제 건전성에도 기여한다[33]고 하니 인플레이션,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다양한 경제이슈 관련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전문직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건강불평등 문제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연대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졸업 후 실무현장에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에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할 수 있어야 한다[26].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념만으로는 직접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기대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실천으로 이어진다[34]고 하니 간호대학생들에게 건

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의 공정성 유지와 공공자원 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대한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책무[11]에 대해 대학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 정체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총 51.5%이었다.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준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성과[21],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35], 직무몰입과 조직몰입[36], 직무만족과 소진[37], 임상실습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23] 등이 있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 간호 수행과 질 높은 대상자 간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23]이고 인문학적인 교양지식과 서사적 체험이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제공한다[38]고 하니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증진을 위해 대학에서는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와 환경을 꾸준히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의 전문직 정체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14]을 통해 국내 연구 대다수가 국방, 교육, 사회복지, 의료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31-33] 연구가 많았는데 이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관련 직업군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원인이라고 한다[14]. 간호 분야에서는 수술실 간호사 대상의 조직문화, 전문직 정체성과 조직성과와의 연구[21], 응급실 간호사대상 연구[39],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비교연구[40] 등 소수가 진행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 요인으로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을 변수로 살펴본 점과 이들 변수가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 변수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구성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Z세대 간호대학생의 정치적 관심, 경제적 관심, 사회문화적 관심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전문직 정체성은 4.01점(최대 5점)이었으며, 전문직 정체성에 사회문

화적 관심($\beta=.590, p=.000$)이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경제적 관심, 정치적 관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력은 51.5%이었다. 본 연구는 Z세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경제적 관심이란 새로운 개념의 적용과 사회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심을 적용하여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편의표출로 인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정체성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관심과 경제적 관심을 포함한 사회현상 요인들에 대한 반복연구 및 사회문화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실천의지 함양과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과 학과 차원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지체계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University Tomorrow Research Institute, Millennials-Gen Z Trend 2022, Wizdumhouse: Seoul, Korea, 2021.
- [2] K. U. Phillips. The Future of feeling : Building Empathy in a Tech-Obsessed world, translated S.H. Kang, Seoul, Laismaker, 2020.
- [3] S. J. Jang, S. K. Ryu, "The Influenc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Cynicism on Political Participation - Focus on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Vol.47, pp.137-162, 2017.
DOI: <http://doi.org/10.35731/kpca.2017..47.004>
- [4] J. I. Lee, "A Convergence Study on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Global Citizenship as influenc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2, pp.391-400, 2020.
DOI: <http://doi.org/10.15207/JKCS.2020.11.12.391>
- [5] M. K. Min. *Social-Cognitive Model of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 for Korea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4.
<http://www.riss.kr/link?id=T13252696>
- [6] N. Y.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7] Yunhap news. 46% of college students suffer from 'chronic stress'. yunhap news. August 31, 2010.
- [8] Innotion insite group, Friendly Trend Gossip 2021, Kyoyoudang: Seoul, Korea, 2020.
- [9] B. M. Cho, "An Analysis of Economic Conscience and Opinion to Globalization and Knowledge-based Society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ocial Studies",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Vol.11, No.1, pp.51-81, 2004.
<http://www.riss.kr/link?id=A75020841>
- [10] T. J. Kim, A. N. Kim, N. H. Kim, B J. Lee, & J. Han, The study of measuring citizenship for developing social capital,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03.
- [11] J. G.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ocial justice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 Docto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9.
<http://www.riss.kr/link?id=T15011199>
- [12] J. W. Park, (A)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orker*,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94.
- [13] E. A. Herda, Research Conversations and Narrative, A Critical Hermeneutic orientation in Participatory Inquiry. Praeger(Westport), pp.1-5, 1999.
- [14] M. H. Moon, J. W. Kim, "A Meta-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8, pp.157-169, 2022.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8.157>
- [15] J. S. Shin,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12.
<http://www.riss.kr/link?id=T12892284>
- [16] D. W. Shin, H. S. Y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Vol.13, No.2, pp.137-159, 2010.
- [17] J. H. Kim, M. G. Kim, Y, J, Ji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Media Use on the Evaluation of the Leading Candidate in the Korean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 Analysis of the Panel Data with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44, pp.76-107, 2008.
- [18] B. C. Cho. "A Study on Economic Conscience: Knowledge-Behavior of Student Teache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54, No.3, pp.192-222, 2006.
<http://www.riss.kr/link?id=A35498645>
- [19] S. H. Yoon,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Indicator for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20] R. H. Hall,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92-104, 1968.
- [21] M. J. Kim,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identity*

-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perating Room.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22] SPSS IBM Corp. Released 201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NY : IBM Corp.
- [23] E. J. Ryu, S. E. Choi, "Impa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9, No.1, pp.50-59, 2022. DOI: <https://doi.org/10.22705/ikashcn.2022.29.1.50>
- [24] Haghghat S, Borhani F, Ranjbar H.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moral competencies and the forma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BMC Nursing*, Vol.19, No.1, pp.1-7, 2020. DOI: <https://doi.org/10.1186/s12912-020-00440-y>
- [25] J. H. Kim.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College of Nursing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4, pp.37-45, 2018.
- [26] J. H. Ko, M. J. Kang, H. J. Kim, "The Convergent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and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9, pp.108-116, 2019. DOI: <http://doi.org/10.22156/CS4SMB.2019.9.9.108>
- [27] D. Y.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ome helper training effectiveness on home helper's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Yu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8] O. H. Koo,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wareness, Self-esteem, Empathy and 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7, pp.172-182, 2021. DOI: <http://doi.org/10.5762/KAIS.2021.22.7.172>
- [29] O. H. Koo, "The Influ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Non-face-to-face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0, pp.346-356, 2021. DOI: <http://doi.org/10.5762/KAIS.2021.22.10.346>
- [30] M. R. Lee, M. J. Kim,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197-20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197>
- [31] K. Y. Lee,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edia usage pattern,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46, No.2, pp.205-231, 2007.
- [32] M. K. Lee, J. Y. Lee, S. H. L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Trust on Political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Non-nursing Stude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57, pp.113~132, 2021. DOI: <https://doi.org/10.37243/kahms.2021.57.113>
- [33] J. W. Park, Y. W. Jang, "A Study of The University Student and Career Starter's Economic Education Effect on Economic Literacy and Consuming Behavior",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Review*, pp.1-14, 2014.
- [34] J. E. Kim, *The Effects of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on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xperiential Avoidance, and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with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Master's thesis, Jeonbook.
- [35] B. K. Jeong, *The Effect of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on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orker in Day C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Master's thesis, Gong 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Korea, 2021.
- [36] S. G. Lee, *Effect of identity that exercise and physical therapist perceives on organization commitment,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Docto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37] M. R. Park, *The Effect of professional identity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 Cases of Employees in Youth Shelters in the Capital A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20.
- [38] J. H. Park, *The Form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 Exploring Characteristics of Its Regression, Stagnation, and Progression*, Docto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39] J. H. Kim, H. Y. Ahn, M R. Eom, M Y. Lee, "A Study of Emergency Room Nurses Burn-out, Nursing Performa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19, No.1, pp.50-59, 2010.
- [40] Y. L. Kim, E. J. Shin, "A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Identity (Social Workers VS Nurs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10, No.1, pp.23-49, 2013.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관